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좌절-공격성 이론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현진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좌절-공격성 이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Yoo Joan Paek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현 진

이현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원장 이 봉 주

부위원장 한 윤 선

위원 Yoo Joan Paek

국문초록

#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좌절-공격성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현진

본 연구는 학교와 사이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 피해가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이 매개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폭력이나 학대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아동·청소년에게 내면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피폭력 및 학대 경험의 변인이 우울 및 불안, 공격성과 이루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비행행동, 가해행동,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관찰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론으로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성 이론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폭력 및 학대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좌절-공격성

이론에서 부정적인 사건과 공격성에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요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청소년이 일관되게 보이는 우울과 불안 증상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응답한 만 18세 미만의 2,497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주요변수들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 상의 폭력 피해 경험, 가정 내에서 경험한 학대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그리고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모두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부분 매개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좌절-공격성 이론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사건과 공격성에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한다는 설명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완화 및 회복을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주요어** : 좌절-공격성 이론, 폭력, 학대, 공격성, 우울

**학 번** : 2018-28786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6
제 1 절 공격성 .....	6
제 2 절 좌절-공격성 이론 .....	10
제 3 절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	16
제 4 절 우울·불안 .....	20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5
제 1 절 연구모형 .....	25
제 2 절 연구가설 .....	26
제 4 장 연구방법 .....	26
제 1 절 분석 자료와 연구대상 .....	26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27
제 3 절 분석 방법 .....	36
제 5 장 연구결과 .....	38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
제 2 절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39
제 3 절 가설검증 .....	43

제 6 장 결론 .....	6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1
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	63
제 3 절 연구의 함의 .....	66
제 4 절 연구의 한계 .....	73
참고문헌 .....	75
Abstract .....	92

## 표 목 차

[표 4-1] 독립변수 문항 .....	29
[표 4-2] 종속변수 문항 .....	32
[표 4-3] 매개변수 문항 .....	33
[표 4-4] 주요변수 목록 .....	35
[표 5-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39
[표 5-2] 주요변수 기술통계 .....	40
[표 5-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42
[표 5-4]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	45
[표 5-5]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	46
[표 5-6]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	47
[표 5-7] 학교폭력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	49
[표 5-8] 사이버폭력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	51
[표 5-9]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	54
[표 5-10]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 우울·불안 매개효과 붓스트레핑 검증 .....	55
[표 5-11] 통합모형 검증 .....	58

## 그 림 목 차

[그림 2-1] 좌절-공격성 이론 모형 .....	15
[그림 3-1] 연구모형 .....	24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먼저 괴롭혀서’라고 응답했다(교육부, 2019).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비추어보면 평소에는 관찰하기 힘들지만 내제되어 있던 공격성으로 인해 파괴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과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가 공격성에 대한 발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차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과격화되자 많은 연구자들은 그동안 주목하던 ‘가해자들의 공격성’만이 아닌 ‘피해자의 공격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에서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김미정, 염동문, 2012; 노충래, 이신옥, 2003), 행동장애, 절망감, 부적절한 사회 기술 등 개인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친다(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박정녀, 최해림, 2005). 이러한 양상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loroso, 2003; Olweus, 1997; 김혜련, 이재연, 1994; Widom, 1989). 아동기에 발현되는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또래 비행 및 지위비행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폭력 및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Coie & Dodge, 1998; Olweus, 1997; Furrington, 1991),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음주 중독,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Knox, King & Hanna, 2000).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Freud, 1997; Main,

Kaplan & Cassidy, 1985; Akers, 1973). 그 중, 타인의 공격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폭력이나 학대의 사건은 ‘가해자의 공격성’이 ‘피해자의 공격성’에 전이 혹은 증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Olweus(1994)는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폭력의 재생산(cycle of violence)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학대를 당한 자녀가 또 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다시금 가해학생이 되는 악순환을 설명한다(이경숙, 김보애, 노정숙, 200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에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할 경우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지혜, 오주화, 정현희, 2019; 조민경, 조한익, 2019; 김현진, 김민, 2016; 이주성, 2004).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김경은, 최은희, 2012),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Chermack, Berman, & Taylor, 1997). 이에 더해, 이러한 피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으로 연장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유나, 김승윤, 이상민, 2006). 국내의 다수 연구에서도 사이버 불링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태곤, 2013; 전은숙, 2013). 또래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신체적 학대를 입은 경우, 신체적 손상과 함께 공격성 증가, 대인관계에서의 폭력 사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오혜정, 2004). 또한, 피학대 경험으로 인한 공격성은 성인기의 범죄행동, 데이트 폭력 및 배우자 학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Ormrod, Turner & Holt, 2009; Olweus, 1997; Widom, 1989).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은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공

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요인이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Carter, Paranjothy, Davies, & Kemp, 2020;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다시 말해, 폭력 혹은 학대 피해경험이 공격성을 유발하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폭력 및 피학대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조건 즉, 어떤 특정한 상황적 조건에서 공격성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같은 폭력 및 학대의 경험은 내면화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그 중 우울과 불안은 많은 연구에서 비행이나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게서 일관되게 발견하는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이다(배성만, 2014; Prinstein, Boergers, Vernberg, 2001).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학교에서의 폭력 혹은 학대의 피해가 우울·불안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이은혜, 박화옥, 2014; Piquero, Connell, Piquero, Farrington, & Jennings, 2013). 이는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피해경험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전해숙, 2008). 그러나 우울 및 불안의 상태가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정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은정, 박은정, 2005). 이에 여러 선행연구는 우울·불안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평소 공격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우울 및 불안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Kashani, Beck, Fallahi, Corcoran, McAllister, & Reid,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피해로 인한 고통의 신호로 우울감을 호소하지만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우울 및 불안의 증상이 더욱 증폭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 문제행동이 공격적인 행위로 발현될 때에야 비로소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은 주로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피해가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Hinduja, & Patchin, 2008; Mazerolee, & Piquero, 1997). 하지만 폭력이

나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가해행동 혹은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Lee, & Kim, 2017)에 따라 폭력의 재생산 현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Berkowitz(1989)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소개하면서 공격성이 필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했다. 좌절-공격성 이론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Berkowitz, 1989). 이러한 주장은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불가연적으로 가해행동이나 학대 행위로 이어진다는 ‘폭력의 재생산성’ 현상이 실증적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보이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Berkowitz(1989)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는 ‘부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과격화되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촉발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Maslow(1941)의 욕구위계이론에서 이야기하듯 생체적인 욕구가 만족된 경우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이나 학대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Weiner, 1985), 생존을 비롯해 위협적으로 가해지는 사건일수록(Breuer & Elson, 2017) 공격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되는바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대한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성 이론을 중심으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두드러진 증상인 우울 및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과거의 피해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하여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도출된 결과를 통해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향후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 방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경로를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학교, 가정,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이다. 종속변수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매개변수는 폭력이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정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는 우울 및 불안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우울·불안이 매개하는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제 1 절 공격성

#### 1. 공격성의 정의와 유형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공격성(aggression)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갖는 개념적·유형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격성은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격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나 요인 등에 대한 다각적인 증거가 탐색되고 있다. 정신병리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다 보니 개념이 모호하고, 외현화 행동, 폭력성, 반사회적 행동 등 상이한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Archer & McDaniel, 1995). 따라서 공격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개념도 조금씩 상이하다. Buss(1966)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극을 가하는 행위’라 정의하는 반면, Anderson과 Bushman(2002)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와 의도’로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공격성은 접근방식과 형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첫 번째로, Bandura와 Walters(1963)는 공격성을 정의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 혹은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방법에 나타난 특성뿐 만 아니라 공격자의 의도까지 포함하는 정의이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덧붙여 의도나 동기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Berkowitz, 1974).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주는 행동 혹은 협박, 괴롭힘 등 타인의 정서나 자존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Olweus, 1978).

Allen과 Anderson(2017)은 공격성을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타인을 때리거나 꼬집기, 발차기 등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행위의 공격성이다. 두 번째는 비명, 고함,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내포하는 언어적 공격성이다. 세 번째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타인의 대인관계에 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수치심을 입히는 행위이다.

공격성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Vitaro와 동료들(2002)은 두려움이나 도발에 대해 분노적으로 대응할 경우 나타나는 반응적 공격성과 타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해치거나 지배하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반응적 공격성은 방어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주도적 공격성은 목표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

종합해보면, 공격성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분류는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행위만을 살펴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격성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Prinstein & Cillesse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만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기 위하여 Berkowitz(1989)가 정의하는 ‘타인을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으로 상해하거나 손상시키려는 행위 혹은 의도’로 공격성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 2.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많은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의 공격성을 비행 혹은 폭력 행위에 대한 잠재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김재엽, 이동은, 2014; Petras, Schaeffer, Lalongo, Hubbard, Muthen & Lamert, 2004). Farrington(1989)이 8세부터 32세까지 추적한 종단연구를 살펴볼 때 높은 공격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높은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패턴은 30대가 되었을 때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향후 반사회적인 태도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2011).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기에 보이는 공격성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영향이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사회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갖는 발달적 특징을 탐색하거나 공격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볼 뿐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아왔다(김현진, 김민, 2016). 두 번째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서미정(2011)은 지금까지 수행된 공격성의 연구들이 신체적 공격성과 같이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직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에만 초점을 두어 관계적, 간접적 공격성을 포괄하여 살펴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폭력행위와 같이 공격적인 행위만을 조명할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은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 학자들을 통해 폭력이나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증명되어 왔지만, 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어떠한 경로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Allen & Anderson, 2017). 즉, 아동기의 피학대 경험 자체가 폭력행



위를 유발하는지 혹은 다른 매개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Carter et al., 2020; 이주성, 2004; 김정원, 오경자, 1993).

종합해보면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촉발되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좌절-공격성 이론을 주장한 Berkowitz(1989)는 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사건과 공격성 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아동·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던 공격성에 대한 촉발요인과 매개효과에 대한 간극을 보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이나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좌절-공격성 이론의 등장과 개념 그리고 이론에서 설명하는 변인을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조작적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제 2 절 좌절-공격성 이론

### 1. 이론의 개념과 특징

‘폭력의 재생산’ 현상과 함께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공격성의 양상은 관계성, 회피, 폭력성, 자해성 등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서미정, 2011). 뿐만 아니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개인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으로 분절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이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된 바, 좌절-공격성 이론이 위와 같은 지적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Breuer, & Elson, 2017).

좌절-공격성 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Dollard et al.(1939)이 ‘모든 공격성은 좌절로부터 야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들은 ‘좌절(frustration)’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욕구 혹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 혹은 ‘목표하는 행위가 방해받는 상태’로 정의했다(Dollard et al, 1939). 이를테면, 타려고 했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Doob, & Sears, 1939), 원하는 온도가 아닌 너무 춥거나 더운 경우(Anderson, 1989), 퍼즐게임 중 그림이 맞추어지지 않는 경우(Geen, 1968)와 같이 개인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검증했다.

Dollard et al.(1939)는 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기본 전제를 설명한다. 첫 번째로 모든 좌절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공격성에 대한 충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공격적인 행동은 과거의 좌절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하지만, 좌절과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Dollard et al.(1939)의 주장은 이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격성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적대적인 공격성으로 축소된 개념으로만 살펴보고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개인의 인지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Fox & Spector, 1999; Berkowitz, 1989; Miller, 1941). 이러한 비판에 이후 공동 연구자였던 Miller(1941)는 ‘좌절은 여러 유형의 반응을 촉발(instigation)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좌절경험에 의한 공격성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어 Berkowitz(1989)는 부정적인 사건(aversive event)을 좌절(frustration)로 소개하면서 불쾌한 사건이 직접적으로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negative affect)이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때 좌절은 외부에서 촉발되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 상태로 해석한다. 즉, 공격성의 발화점이라 볼 수 있는 좌절은 불쾌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를 매개로 공격성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Berkowitz, 1989). 이와 같은 주장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공격성이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Dollard et al.(1939)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다(Bushman & Geen, 1989).

Berkowitz(1989)의 이론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좌절’이 갖는 차별적인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Berkowitz(1989)는 좌절에 대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 불편함(physical discomfort)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편함(psychological discomfort)이 느껴지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등의 요인이 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kowitz, 1989). 이후 연구자들은 따돌림 당하는 상황(Tam & Taki, 2007), 신체적 학대에 대한 사건(Shackman & Pollak, 2014)과 같이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놓고 논리를

검증하고자 시도했다. 좌절을 정의하는 바와 같이 본 이론은 연구대상자가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좌절이나 위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과 달리 관찰 가능한 좌절된 사건, 환경적 특성과 같이 객관적인 요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Breuer, & Elson, 2017).

두 번째로 본 이론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공격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증명한다. 즉, 부정적인 사건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적인 반응이 공격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동일한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과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피해 경험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자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이론을 통해 공격성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에 따른 공격성이 모두 직접적인 행위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크게 돌파형(fight) 공격성과 회피형(flight)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돌파형 공격성은 고함, 폭력행위, 기물 파손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을 가리키는 반면, 회피형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격성으로부터 파생된 면모 중 일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중심인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Shackman & Pollak, 2014).

한편, 좌절-공격성 이론 외에도 Agnew(1988)도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Agnew(1988)의 긴장이론은 본 이론의 경로와 일부 유사하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내면화 영향이 다시 외현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이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긴장이론은 비행행위를 설명하고 있어 본 이론에서 구분하는 돌파형(fight) 공격성만 포함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외현적인 공격성으로 볼 수 있는 비행행위를 보고자 하는지 혹은 본 이론과 같이 공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긴장이론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행행위를 저지른다고 보는 반면, 좌절-공격성 이론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공격성이 발현된다고 바라본다(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마지

막으로, 긴장이론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촉발요인을 긴장(strain)으로, 좌절-공격성 이론에서는 좌절(frustration)로 설명하고 있다.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이란 긍정적 목표 성취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보지만, 좌절-공격성 이론에서 말하는 좌절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보아 조금 더 협소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Berkowitz, 1989). 결과적으로 그동안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고자 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지만, 돌파형(fight) 공격성으로 볼 수 있는 비행행위 혹은 가해행위를 다루고 있어 공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좌절-공격성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2. 이론의 적용

다음으로는 앞서 짚어보았던 좌절-공격성 이론이 나타내는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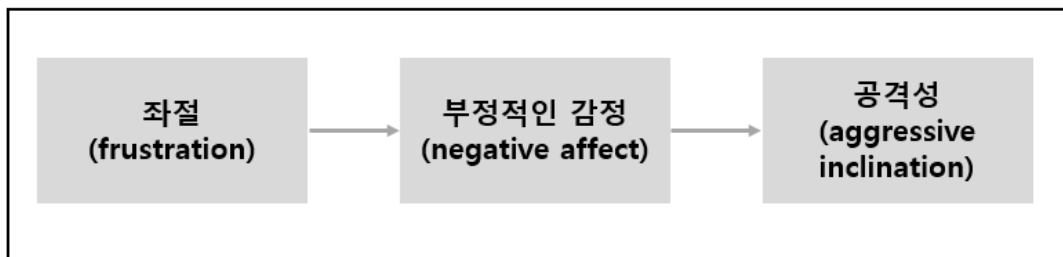
우선 이론에서는 좌절에 대한 정의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욕구에 대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Maslow(1998)의 욕구위계이론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적 단계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아동빈곤율이 32.6% 감소하는 등 생체적 욕구를 충족한 아동의 수는 많아짐에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나 사이버 폭력 발생율은 반대로 증가하는 현상을 주목해볼 수 있다(교육부, 2021; 여유진, 2017). 이에 따라 학대나 폭력의 경험은 Maslow(1998)가 주장하는 욕구위계이론에서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사건으로 본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에서는 좌절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불합리할수록,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일수록(Berkowitz, 1989), 자신에게 통제권이 없을수록(Weiner, 1985)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검증했다. 이에, Miller(1941)는 가족이나 또래와

같이 지속적인 관계에서 좌절이 반복되는 경험을 할 경우 공격성향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러한 공격성향은 적절한 표적대상이 나타났을 경우 공격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를 종합해보건대,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당사자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부모나 또래와 같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좌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생존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위협이 가해지는 사건이나 상황일수록 이에 대해 공격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Breuer & Elson, 2017)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mont, 2010). 특히, 우울이나 불안감은 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박지혜, 오주화, 정현희, 2019; 이유나, 조윤오, 2015; 우채영, 정현희, 2013).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이나 불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사건에 대한 결과로 그치지 않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된다(Kashani et al., 1987). 이에 Berkowitz(1989)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는 Shackman과 Pollak (2014)는 학대당한 아동이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러한 관계는 부정적인 감정이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폭력 및 학대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청소년이 보이는 대표적인 심리정서인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Berkowitz(1989)가 설명한 좌절-공격성 이론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업무시간에 경험하는 좌절되는 경험이 가족 구성원에게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조직 내 팀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되거나(Reio, 2011; Fox, Spector, 1999), 버스를 놓쳤을 때와 같이 목표행위에서 좌절되는 상황 혹은 불쾌할 정도의 차갑거나 더운 상황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었다 (Anderson, 1989; Berkowitz, 1990; Berkowitz, 1989, Berkowitz, 1983).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본 이론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더불어, 아직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폭력 및 학대 피해아동·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정서로 볼 수 있는 우울 및 불안이 공격성에 어떠한 설명력을 지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그림 2-1] 좌절-공격성 이론 모형

### 제 3 절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많은 연구자들은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또 다른 폭력이나 학대를 가담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격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폭력과 학대로 인한 피해자였던 당사자들에게서 높은 공격성이 발견된다고 설명하였다(윤소영, 유미숙, 2011; Bernstein & Watson, 1997; Olweus, 1993; Dumas & Lechowicz, 1989).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의 공격성이 또 다시 가해자의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Berkowitz(1989)가 공격성의 촉발요인으로 주장하는 부정적인 경험인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을 중심으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교 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0.02.13. 검색).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가 지난해 2020년에는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교육부, 2021).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피해는 점차 그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으며,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폭력에 의한 신체적인 피해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한지연, 임영식, 2007).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외로움, 낮은 생활 만족도, 낮은 자신감과 더불어 분노, 높은 공격성을 갖는다고 보고되었으며(Olweus, 1993),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



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Chermack, Berman & Taylor, 1997). 국내연구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중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공격성을 가장 유력한 결과 요인으로 밝혔다(윤소영, 유미숙, 2011). 이러한 현상은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자신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어 공격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신희경, 2006). 또한, Anderson(1999)은 폭력 피해에 대한 위협감을 인지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폭력의 경험이 공격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에게 사이버공간이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친밀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일반화에 대한 역기능으로 여겨질 만큼(안성진 외, 2015) 학교폭력과 양맥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현실공간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함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줄어들었고 반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건수는 증가하게 되었다(교육부, 2021).

2018년도에 조사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SNS를 사용하는 90%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Hinduja & Patchin, 2015).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또래 혹은 선후배간의 교류가 더 증가한 점을 미루어볼 때,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더욱 높게 집계된 것은 충분히 예기할 수 있는 결론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의 경험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숙(2013)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겪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공격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인수와 이수경(2012)의 연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경험은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영향보다는 사이버 폭력 피해와 가해행동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Hinduja & Patchin, 2008)가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사이버폭력이 가해행동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신체적 폭력과 같은 가혹행위 및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 학대는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서 상존하고(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청소년의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렵고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개입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김미숙, 2016).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정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에 발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김재엽, 1996).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학대피해 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적 개입을 시도해왔으나 안타깝게도 그 수치는 매해를 거듭할수록 오름세에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20)에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총 30,045건으로 방임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모두 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10년 전 수치인 2009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사례가 5,685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발견율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국내연구에서도 이러한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기에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김세원, 2014). 일부 연구(Knox et al, 2000; Berkowitz, 1989)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기분을 통제하지 못할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Mazerolee와 Piquero(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언과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행과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부터 부모가 학대를 통해 공격성을 드러낼 때 그 자녀 또한 부모라는 모델을 통해 학습하면서 대체적으로 충동적,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 등의 공격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Bernstein & Watson, 1997; Dumas & Lechowicz, 1989). 또한, 갈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폭력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충동 조절 등의 정서적 혼란, 부정적인 대인관계 등을 야기할 수 있다(정기원, 서현숙, 2007).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발달은 이후 공격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닌다. 이와 같이, 부모에 의한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환경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학대가 발생할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제 4 절 우울·불안

### 1.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우울·불안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2018년도에 조사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위험한 상황으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여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5년 사이에 약 1만 3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은 높은 정신건강 위험률을 보이고 있으며(손병덕, 2005), 특히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제행동으로 우울 증상이 밝혀졌다(이미리, 1996). 이러한 우울 증상은 불안장애와 21~70%의 합병률을 보이고 있어 두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로 보기도 한다(Kovacs, 1990). 이 두 증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이기 때문이다(이봉주, 김세원, 2014). Al-Fayes, Ohaeri, Gado(2012)가 고등학생 4,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불안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고,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초등학생이 학대를 경험할수록 우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Hawker & Boulton, 2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학대나 폭력의 영향으로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 외에도 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사회적 위축이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에 비해서는 일관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석영, 이택호, 한운선(2015)의 연구에서도 학교 폭력을 경험은 청소년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사회적 위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일 연구에서는 위축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또

래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 일으켜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친한 또래가 있을 경우 부정적인 문제가 완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심리정서 증상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보고되는 우울 및 불안에 각 피해유형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규범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이은혜, 박화옥, 2014).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염정원, 조한익, 2016). 학교에서 또래나 선배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은 스트레스, 무기력 등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김현숙, 2013). 또한, 우울·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한다고 보고된다(Lewinsohn, Rohde, Seeley, & Baldwin, 2001; Hawker & Boulton, 2000). Boyes, Bowes, Cluver, Ward & Badcock(2014)은 3,515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년 후 우울·불안 수준이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동일하게 국내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배성만, 2017; 우채영, 정현희, 2013), 우울·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Kim, 2017; 김현숙, 2013; 고광만, 2012).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할 경우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우울·불안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완정, 정혜진, 2010).

### 2)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피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과급력이 높다는 특성으로 인해 폭력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달리 발견이 어렵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 더 크다(김은경, 2012). 사이버 폭력은 아동·청소년의 불안, 자존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특히 우울·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Ak, & Kuzucu, 2015).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조춘범, 2015), 슬픈 감정과 비참함을 느끼는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라(Hinduja & Patchin, 2008)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는 아동에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자기조절 능력,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Sternberg와 동료들(1993)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내면화, 외면화 문제행동을 각각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과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우울·불안증상을 보였다(김지영, 이경희, 2015; 이봉주, 김세원, 2014; 송민선, 박희현, 2012). 김은경, 이정숙(2009)가 초등학생 7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우울·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 내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방임, 성학대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유발하고 특히 우울과 불안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우울·불안과 공격성

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공격성과 더불어 우울감과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격성이 동일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Berkowitz, 1989). 이는 학대를 당한 아동 중 2/3는 향후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Kemp, 2001).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됨에 따라 어떠한 요인을 매개하여 공격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정서인 우울과 불안을 공격성에 대한 주요 매개요인으로 검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양혁, 양나연, Kim, 그리고 김보영(2019)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피해경험과 비행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했다. 결과적으로 비행피해의 경험은 우울감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피해 경험에서 가해행동의 매커니즘에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 및 학대가 부정적인 심리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가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공격성을 살펴본다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비행의 피해가 비행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만을 탐색했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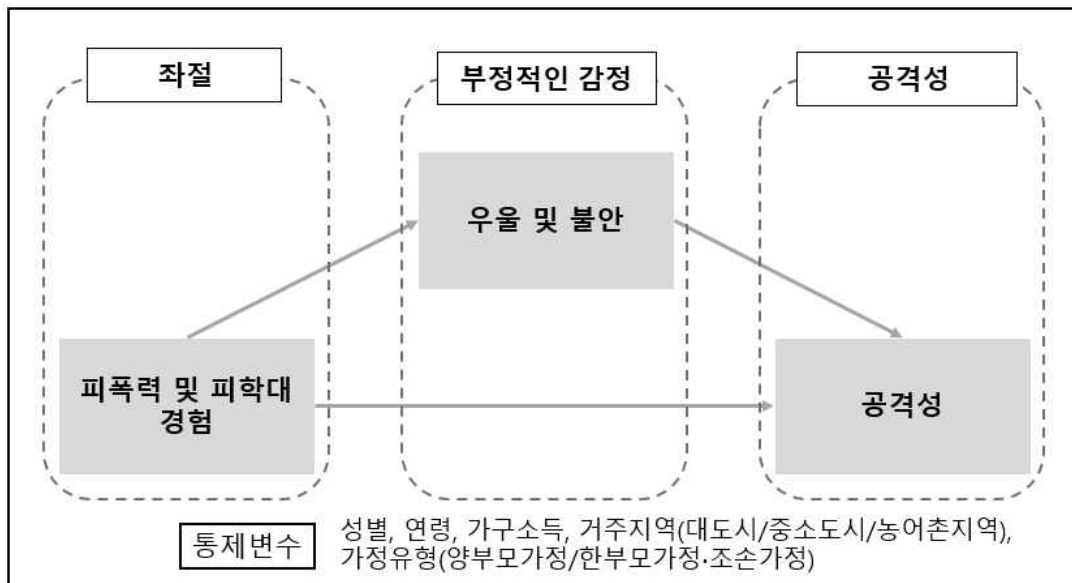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kowitz(1989)의 주장에 따라 폭력 및 학대의 피해 경험이 우울·불안을 매개로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우울·불안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매개요인으로 확인된다면 공격성을 완충할 수 있는 개입이 우울·불안을 통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제 1 절 연구모형

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접목시키고자 하는 좌절-공격성 이론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은 자신이 선택한 경험이 아니며,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경우 긍정적인 경험에 비해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겪는 좌절되는 사건으로 학교나 가정, 사이버 공간에서 겪는 피해경험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Dollard et al.(1939)이 제시하고 Berkowitz(1989)가 수정한 좌절-공격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울·불안의 매개효과를 통해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모형은 [그림3-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3-1] 연구 모형



## 제 2 절 연구가설

위의 모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1]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이버 상의 폭력 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우울·불안이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1]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을 매개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이버 상의 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을 매개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을 매개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 4 장 연구방법

### 제 1 절 분석 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석 자료는 2018년 제3차 아동종합실태 조사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2020년~2024년 제 2차 아동정책기본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실시되고 있다. 2008년에 조사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와 2013년에 조사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후속조사이며, 아동의 성장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이봉주, 2019). 본 조사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양육, 생활환경,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조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학교재학여부 등을 묻는 일반 사항과 신체건강과 건강행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건강 영역이 있다. 교육, 학교생활, 진로 등을 묻는 발달 및 교육 영역과 가족관계, 또래관계, 관계 만족도 등이 포함된 관계 영역이 있으며, 여가 및 활동 영역에서는 방과 후 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노동 착취 경험 등이 포함된다. 안전 및 위험행동 영역에서는 흡연,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방임 피해 경험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환경 영역에는 사회통합, 지역사회 소속감이 포함되며, 물질적 환경 영역에는 아동 결핍, 주관적 가정이, 주관적 웰빙에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이 포함된다. 조사는 보호자와 아동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아동의 경우 만 0~8세는 아동이 아닌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으며, 9~18세의 아동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였다(류정희 외, 2019). 조사는 전국표본 조사구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2,500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1,500가구로 표본은 총 4,00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층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아동청소년 수를 고려해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가용할 수 있는 최신의 데이터 중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 대표성을 나타낸다. 한국청소년패널의 경우 2008년 이후로 조사되지 않아 현시점을 기준으로 아동의 동태를 가장 유사하게 살펴보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서울아동패널조사(2008)도 2008년 이후 조사가 진행된 바 없으며, 서울 내 거주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어 배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는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조사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20)에는 폭력 및 학대 경험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고, 비행에 대한 경험만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비행 가해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공격성에 초점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실시된 제 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데이터는 학령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Anderson, Russell, & Schumm(1983)의 연구결과에 따라 9~18세 아동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총 2,510명의 아동·청소년이 응답하였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한 2,497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가정 내 학대 경험’이다. 종속변수는 ‘공격성’이며, 매개변수는 ‘우울·불안’이다. 통제변수로는 아동의 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정 유형(양부모 가정/한부모·조손가정),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이다. 각 변수에 따른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독립변수 : 피폭력 및 피해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그리고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전혀 없다’에 해당하는 1점부터 ‘4번 이상’에 해당하는 4점으로 측정되었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문항은 ‘평생 경험한 적이 없다’에 해당하는 1점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에 해당하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격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초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라 평균화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피해경험에 따른 척도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첫째로,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격성 척도(PNI)를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노혜련, 김형태, 유서구, 2006). 총 7문항으로, 무시나 따돌림, 조롱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문항에 대하여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 1번(2), 2~3번(3), 4번 이상(4)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혹은 학대 피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1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2)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소문, 불쾌한 사진 등을 통해 피해를 받은 경험이 묻는지에 대하여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문항에 대하여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부터 1번(2), 2~3번(3), 4번 이상(4)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자 했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값)는 .773으로 나타났다.

### 3)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피해 경험을 묻기 위하여 Straus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Parent-Child Conflict Scale(CTSPC)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분류되어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이 문항에 나타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 하지만 성학대에 대한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가족외의 어른이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대의 행위를 가정 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벗어난다. 또한, 이 문항에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를 채 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8문항과 방임에 대해 묻는 5문항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두 세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3~5번, 일 년에 두 번, 지난 일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로 측정되었다.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9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항은 <표4-1>과 같다.

<표 4-1> 독립변수 문항

변수명	문항 내용
학교 폭력	①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②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③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또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

	<p>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p> <p>④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p> <p>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p> <p>⑥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p> <p>⑦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p>
사이버 폭력	<p>① 아이들로부터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사진)</p> <p>②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p>
가정학대	<p>①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p> <p>②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p> <p>방 ③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p> <p>임 ④ 부모님(보호자)이 술 등에 취해 나를 제대로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p> <p>⑤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더럽거나 해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혔다.</p> <p>① 부모님(보호자)이 벨트, 머리빗,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p> <p>② 부모님(보호자)이 벨트, 머리빗,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렸다.</p> <p>③ 부모님(보호자)이 맨손으로 나의 신체(예: 엉덩이)를 때렸다.</p>

- 
- 정  
서  
학  
대
- ④ 부모님(보호자)이 내동댕이치거나 밀쳐 넘어뜨렸다.
  - ①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었다.
  - ②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 ④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 

## 2) 종속변수 : 공격성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k과 Edelbrock(1983)이 개발한 K-CBCL(Korea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을 활용할 계획이다. K-CBCL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평가 척도로 여러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공격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공격성 뿐 만 아니라 표적을 향해 모호한 공격적인 행동 및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적인 공격성도 포함하고 있어 공격성을 두루 살펴보는데 용이하다(오경자, 배도희, 2010). 문항은 개인의 지난 6개월간의 심리적인 태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 내용은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응답 방식은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97로 나타났다. 자세한 문항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종속변수 문항

변수명	문항 내용
	①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②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③ 샘을 잘 낸다.
	④ 고함을 지른다.
	⑤ 으스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⑥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⑦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⑧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⑨ 말다툼을 자주 한다.
공격성	⑩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⑪ 내 물건을 부순다.
	⑫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⑬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⑭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⑮ 자주 싸운다.
	⑯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⑰ 남을 잘 놀린다.
	⑱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⑲ 남을 위협한다.

### 3) 매개변수 : 우울·불안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오경자 등(1997)이 번역한 K-CBCL을 활용하고자 한다. K-CBCL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슬픈 감정이나 두려움, 긴장, 걱정, 침울한 기분 등에 대한 우울 및 불안에 대하여 묻고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K-CBCL의 13개 문항을 부정적인 감정(negative affect)으로 설정하고 Berkowitz가 주장하는 매개경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응답 방식은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62로 세부 문항으로는 <표 4-3>과 같다.

<표 4-3> 매개변수 문항

변수명	문항 내용
우울 불안	① 외롭다고 불평한다.
	② 잘 운다.
	③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④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⑥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⑦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⑧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⑨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⑩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⑪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⑫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피하고 우울해한다.
	⑬ 걱정이 많다.

#### 4) 통제변수

전술한 학교나 학대 피해 경험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차원적이거나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통제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의 소득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구인회 등(2009)은 빈

곤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고정자(2003)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공격성이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반면, 유사한 맥락에서 가구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가정의 형태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공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idy, Tremblay, Bates, Brame, Dodge, & Vitaro, 2003).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이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돌림에 대한 가해나 피해 경험이 농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도 농촌 지역의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유정, 안선희, 2012; 김연순, 박분희, 2004).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우선,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인 반면, 관계성 공격성의 경우 여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진혜민, 배성우, 2012).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상이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초기 학령기인 초등학교에서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데 반해,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접어들수록 그 정도가 감소추세로 변화했다(김동기, 홍세희, 2007).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분석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정유형, 거주지역이다. 성별의 경우, 남자(1)과 여자(2)로 조사되었지만, 남자(0), 여자(1)로 더미화하였다. 연령의 경우 12~17세(0), 9~11세(1)로 구성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50% 이하(1), 소득수준 50~100%(2), 소득수준 100~150%(3), 소득수준 150% 이상(4), 무응답(5)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이를 더미화로 코딩을 변경하여 '소득수준 150% 이상'을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정유형은 양육형태에 따라 양부모 가정(1)과 한부모·조손가정(2)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나, 한부모·조손가정(0), 양부모 가정(1)로 더미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2), 농어촌

지역(3)으로 조사되었으나 분석을 위하여 더미화로 코딩을 변경하고 ‘농어촌지역’을 기준변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변인들을 정리하면 <표4-4>과 같다.

<표 4-4> 주요변수 목록

구분	변수명	형태	변수 측정 문항	
종속 변수	공격성	연속	전혀 아니다=1	자주 그렇다=3
			그런 편이다=2	
	학교폭력	연속	전혀 없다=1	2-3번=3
	사이버폭력	연속	1번=2	4번 이상=4
독립 변수	가정 내 학대	연속	평생 경험한적 없음=1 지난 일 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2 일 년에 한두번=3 일년에 3~5번=4 한달에 한번=5, 한달에 두세번=6, 일주일에 한번 이상=7	
매개 변수	우울·불안	연속	전혀 아니다=1	자주 그렇다=3
			그런 편이다=2	
통제 변수	성별	범주	여자=0 (ref. 남자=1)	
	연령	범주	12~17세=0 (ref. 9~11세=1)	
	가구소득	범주	소득수준 50% 이하=0 (ref. 소득수준 150%이상=1)	
			소득수준 50~100%=0 (ref. 소득수준 150%이상=1)	
			소득수준 100~150%=0 (ref. 소득수준 150%이상=1)	
	가정유형	범주	한부모·조손가정=0 (ref. 양부모가정=1)	
	거주지역	범주	대도시=0 (ref. 농어촌지역=1)	
중소도시=0 (ref. 농어촌지역=1)				

### 제 3 절 분석방법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을 나타내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이론적·경험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론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1]에 해당하는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에 대한 공격성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가설2]에 해당하는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방법을 시도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검증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불안과 통제변수를 1단계 모형에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가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의 유의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만약 2단계와 비교했을 때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크로를 활용한 붓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이다. 하지만 이들의 방법이 연구모형에서 측정 오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중매개(multiple mediation)와 이중매개(double mediation) 모형과 같은 정교

한 매개모형을 검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Heyes et al.,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Sobel 검정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Sobel 검정방법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하는데,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기 어려워 비현실적인 정규분포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Hayes, 2013). 이러한 한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붓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중 검증하고자 한다.

## 제 5 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을 좌절-공격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촉발요인과 매개요인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정유형, 거주 지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5-1>과 같다.

성별의 경우 2,497명 중 남학생은 1,34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3.9%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1,15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1%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경우 2,497명 중 9-11세는 7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6%를 차지하였고, 12-17세는 1,7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9.4%를 차지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1%를 차지하였고, 중소도시는 1,15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6%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어촌은 21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를 차지하였다. 가정유형의 경우 2,497명 중 양부모는 1,8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5%를 차지하였고, 한부모 및 조손가정은 66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6.5%로 대부분 양부모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50% 미만이라 응답한 응답자는 66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6.3%를 차지하였고, 중위소득 50-100%는 91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4%, 중위소득 100-150%는 6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6.5%를 차지하였으며, 중위소득 1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3%를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50% 이상 100% 미만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5-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 = 2,497)

	변수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347	53.9
	여자	1,150	46.1
연령	9-11세	765	30.6
	12-17세	1,732	69.4
거주지역	대도시	1,126	45.1
	중소도시	1,158	46.6
	농어촌	213	8.5
가정유형	양부모	1,832	73.4
	한부모·조손가정	665	26.6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660	26.3
	중위소득 50%-100%	914	36.4
	중위소득 100-150%	664	26.5
	중위소득 150% 이상	259	10.3

※ 무응답은 제외함.

## 제 2 절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댓값과 최솟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5-2>와 같다.

중속변수인 공격성은 19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은 평균 1.122점, 표준편차 .205로 나타

났으며, 최솟값은 1.00점, 최댓값은 2.58점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포함되는 응답자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평균은 1.121점, 표준편차 .279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00점, 최댓값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평균 1.089점, 표준편차 .317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00점, 최댓값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평균은 1.534점, 표준편차 .768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00점, 최댓값은 7.00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은 13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평균 1.173점과 표준편차 .251을 나타냈으며, 최솟값 1.00점, 최댓값은 2.77점으로 나타났다.

<표5-2> 주요변수 기술통계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공격성	1.00	2.58	1.122	.205
	학교폭력	1.00	4.00	1.121	.279
독립변수	사이버폭력	1.00	4.00	1.089	.317
	가정 내 학대	1.00	7.00	1.534	.768
매개변수	우울·불안	1.00	2.77	1.173	.251

※ 무응답은 제외함.

##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5-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r=.494$ ,  $p<.001$ )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r=.240$ ,  $p<.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r=.226$ ( $p<.001$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은  $r=.241$ ( $p<.001$ )로 나타나 학교폭력, 가정 내 학대의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매개변수인 우울·불안과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677$ ( $p<.00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던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Kashani et al., 1987).

매개변수인 우울·불안과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 $r=.059$ ,  $p<.01$ ), 성별( $r=.043$ ,  $p<.05$ ), 거주지역( $r=.115$ ,  $p<.001$ ), 가정유형( $r=.102$ ,  $p<.001$ ), 소득수준( $r=-.105$ ,  $p<.001$ )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성별에 비해 거주지역과 가정의 유형은 우울 및 불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소득수준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나 성별의 경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거주지역( $r=.135$ ,  $p<.001$ ), 가정유형( $r=.057$ ,  $p<.01$ ), 소득수준( $r=-.088$ ,  $p<.001$ )은 종속변수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주지역과 가정유형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반면, 소득수준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더 적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 = 2,497)

	1	2	3	4	5	6	7	8	9	10
공격성	1									
학교폭력	.312***	1								
사이버폭력	.226***	.494***	1							
가정 내 학대	.241***	.240***	.193***	1						
우울·불안	.677***	.264***	.223***	.217***	1					
연령	.030	-.031	.036	-.015	.059**	1				
성별	.003	-.040*	-.014	-.016	.043*	-.008	1			
거주지역	.135***	.043*	.013	.045*	.115***	.007	.004	1		
가정유형	.058**	-.009	-.008	.018	.102***	.068**	.027	.072***	1	
가구소득	-.088***	-.008	-.044*	-.032	-.105	-.025	-.036	-.102***	-.321***	1

1=공격성, 2=소득수준, 3=사이버 폭력, 4=가정 내 학대, 5=우울·불안,

6=공격성, 7=연령, 8=성별, 9=거주지역, 10=가정유형

\*p<.05, \*\*p<.01, \*\*\*p<.001

### 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는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성 이론을 기반으로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불안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연구가설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인 0.8보다 더 크게 나타난 상관계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붓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정 유형

$D_4$  : 가구 소득

$D_5$  : 거주 지역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 2]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4$  : 가구 소득

$D_2$  : 연령

$D_5$  : 거주 지역

$D_3$  : 가정 유형

$X_6$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모형 3]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4$  : 가구 소득

$D_2$  : 연령

$D_5$  : 거주 지역

$D_3$  : 가정 유형

$X_6$  :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

<표5-4>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n=2,497)

변수		모형 1		
		B	S.E	$\beta$
통제 변수	성별=남자 (ref.여자)	-.006	.008	-.014
	연령=9-11 (ref.12-17)	-.015	.008	-.035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조손가정)	-.012	.009	-.027
	가구소득=50%미만 (ref.150%이상)	.034	.015	.073 *
	가구소득=50~100%미만 (ref.150%이상)	.022	.014	.052
	가구소득=100~150%미만 (ref.150%이상)	.000	.014	.001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4	.015	-.179 ***
	거주지역=중소도시 (ref.농어촌)	-.038	.014	-.093 **
독립 변수	학교 폭력	.226	.014	.308 ***
상수항		.919	.025	***
$R^2$		.120		
Adj $R^2$		.117		
F		37.666***		

\*:  $p < .05$ , \*\*:  $p < .005$ , \*\*\*:  $p < .001$

첫 번째 연구가설인 학교 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적합도 F는 37.666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R^2$  값은 .120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는 공격성에 대하여 1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beta = .308$ ,  $p < .001$ )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1-1]은 기각되지 않았다.

<표5-5>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n=2,497)

변수		모형 2		
		B	S.E	$\beta$
통제 변수	성별=남자 (ref.여자)	-.002	.008	-.004
	연령=9-11 (ref.12-17)	-.007	.009	-.017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조손가정)	-.013	.010	-.029
	가구소득=50%미만 (ref.150%이상)	.028	.015	.059 *
	가구소득=50~100%미만 (ref.150%이상)	.017	.014	.039
	가구소득=100~150%미만 (ref.150%이상)	-.004	.015	-.010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3	.015	-.176 ***
	거주지역=중소도시 (ref.농어촌)	-.027	.015	-.067
독립 변수	사이버 폭력	.144	.013	.222 ***
상수항		1.012	.025	***
$R^2$		.075		
Adj $R^2$		.072		
F		22.430***		

\*:  $p < .05$ , \*\*:  $p < .005$ , \*\*\*:  $p < .001$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적합도 F는 22.430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R^2$  값은 .075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는 공격성에 대하여 7.5%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beta = .222$ ,  $p < .001$ )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1-2]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기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5-6>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n=2,497)

변수		모형 3		
		B	S.E	$\beta$
통제 변수	성별=남자 (ref.여자)	-.002	.008	-.005
	연령=9-11 (ref.12-17)	-.013	.009	-.030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조손가정)	-.009	.009	-.020
	가구소득=50%미만 (ref.150%이상)	.030	.015	.064 *
	가구소득=50~100%미만 (ref.150%이상)	.021	.014	.050
	가구소득=100~150%미만 (ref.150%이상)	-.003	.014	-.006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6	.015	-.183 ***
	거주지역=중소도시 (ref.농어촌)	-.022	.015	-.053
독립 변수	가정 내 학대	.066	.005	.247 ***
상수항		1.062	.022	***
$R^2$		.087*		
Adj $R^2$		.084		
F		26.269***		

\*:  $p < .05$ , \*\*:  $p < .005$ , \*\*\*:  $p < .001$

마지막으로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26.269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R^2$  값은 .087로 나타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는 공격성에 대하여 8.7%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가정 내 학대에 대한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값은  $\beta = .247(p < .001)$ 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아동·청소년이 학대를 당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가설 1-3]의 가설도 기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절차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앞서 [연구문제 1]의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든 독립변수, 즉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모두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유의하다고 밝혀진바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가정 내 학대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 [모형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우울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 5]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X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5$  : 가정 유형

$D_2$  : 연령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D_3$  : 가구 소득

$X_7$  : 우울·불안

$D_4$  : 거주 지역

<표5-7> 학교폭력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n=2,497)

	모형 1		모형 4		모형 5		
	(중속:공격성)		(중속:우울·불안)		(중속:공격성)		
	$\beta$ (S.E)	$\beta$	$\beta$ (S.E)	$\beta$	$\beta$ (S.E)	$\beta$	
상수항	.919 (.025)	***	.994 (.031)	***	.404 (.023)	***	
성별=남자 (ref.여자)	-.006 (.008)	-.014	-.026 (.010)	-.051 **	.008 (.006)	.019	
연령=9-11 (ref.12-17)	-.015 (.008)	-.035	-.032 (.010)	-.059 **	.001 (.006)	.003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 /조손가정)	-.012 (.009)	-.027	-.038 (.012)	-.066 **	.007 (.007)	.015	
통제 변수	가구소득 = 50%미만 (ref.150%이상)	.034 .073 *	.037 (.018)	.065 *	.015 (.011)	.032	
	가구소득 = 50~100%미만 (ref.150%이상)	.022 .052	.015 (.017)	.030	.014 (.011)	.034	
	가구소득 = 100~150%미만 (ref.150%이상)	.000 .001	-.018 (.018)	-.031	.014 (.011)	.034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4 (.015)	-.179 ***	-.068 (.018)	-.135 ***	-.039 (.011)	-.094

	거주지역=중소도시(ref.농어촌)	-.038 (.014)	-.093	**	-.030 (.018)	-.060	*	-.023 (.011)	-.056	*
독립변수	학교폭력	.226 (.014)	.308	***	.236 (.017)	.263	***	.104 (.011)	.141	***
매개변수	우울·불안	-	-		-	-		.518 (.012)	.634	***
모형 적합도	R <sup>2</sup>		.120			.102			.481	
	Adj R <sup>2</sup>		.117			.099			.479	
	F		37.666***			21.350***			230.257***	

\*p<.05, \*\*p<.01, \*\*\*p<.001

우선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 4).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21.350(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beta$ 값이 .263(p<.001)로 확인되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1>에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 5).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F값은 230.257(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8.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141$ , p<.001). 하지만, <모형 1>에 비해서 통계적 영향력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308 > \beta=.141$ ). 또한, 우울·불안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3$ , p<.001).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Model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거주지역=대도시’와 ‘가구소득=50%미만’은 <모형 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X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우울

D<sub>1</sub> : 성별

D<sub>2</sub> : 연령

D<sub>3</sub> : 가구 소득

D<sub>4</sub> : 거주 지역

D<sub>5</sub> : 가정 유형

X<sub>6</sub> :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모형 7]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epsilon$$

Y : 공격성

D<sub>1</sub> : 성별

D<sub>2</sub> : 연령

D<sub>3</sub> : 가구 소득

D<sub>4</sub> : 거주 지역

D<sub>5</sub> : 가정 유형

X<sub>6</sub> :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X<sub>7</sub> : 우울·불안

<표5-8> 사이버폭력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n=2,497)

	모형 2		모형 6		모형 7	
	(종속:공격성)		(종속:우울·불안)		(종속:공격성)	
	β (S.E)	β	β (S.E)	β	β (S.E)	β
상수항	1.012 (.025)		1.067 (.030)		.441 (.023)	
통제 변수						
성별=남자 (ref.여자)	-.002 (.008)	-.004	-.022 (.010)	-.043 *	.010 (.006)	.024
연령=9-11 (ref.12-17)	-.007 (.009)	-.017	.023 (.011)	-.042 *	.005 (.007)	.011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 /조손가정)	-.013 (.010)	-.029	-.039 (.012)	.069 **	.008 (.007)	.016
가구소득 = 50%미만 (ref.150%이상)	.028 (.015)	.059	.029 (.018)	.051	.012 (.011)	.026

	가구소득 = 50~100%미만 (ref.150%이상)	.017 (.014)	.039	.008 (.017)	.015	.012 (.011)	.029	
	가구소득 = 100~150%미만 (ref.150%이상)	-.004 (.015)	-.010	-.023 (.018)	-.041	.008 (.011)	.017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3 (.015)	-.176 ***	-.067 (.018)	-.132 ***	-.037 (.011)	-.089 **	**
	거주지역=중소도 시(ref.농어촌)	-.027 (.015)	-.067	-.019 (.018)	-.037	-.017 (.011)	-.042	
독립 변수	사이버폭력	.144 (.013)	.222 ***	.173 (.015)	.218 ***	.051 (.010)	.079 ***	***
매개 변수	우울·불안	-	-	-	-	.535 (.012)	.654 ***	***
모형 적합 도	R <sup>2</sup>	.075		.081		.468		
	Adj R <sup>2</sup>	.072		.078		.466		
	F	22.430***		24.342***		219.032***		

\*p<.05, \*\*p<.01, \*\*\*p<.001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았다.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 6)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24.342(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의  $\beta$ 값이 .218(p<.001)로 확인되어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우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2>에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 7).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F값은 219.032(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6.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은 <모형 2>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079$ , p<.001). 하지만, <모형 1>에 비해서 통계적 영향력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22 > \beta = .079$ ). 또한, 우울·불안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54$ , p<.001). 따라서 [연구가설 2-2]은 기각되지 않고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거주지역=대도시’가 <모형 7>에서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불안을 매개로 했을 때 여전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우울·불안을 매개로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8]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X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epsilon$$

Y : 우울

$D_1$  : 성별

$D_2$  : 연령

$X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모형 9]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우울·불안 매개효과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X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X_7$  : 우울·불안

<표5-9>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n=2,497)

		모형 3		모형 8		모형 9	
		(종속변수:공격성)		(종속변수:우울·불안)		(종속변수:공격성)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통제 변수	상수항	1.062 (.022)	***	1.137 (.027)	***	.459 (.022)	***
	성별=남자 (ref.여자)	-.002 (.008)	-.005	-.022 (.010)	-.044 *	.010 (.006)	.024
	연령=9-11 (ref.12-17)	-.013 (.009)	-.030	-.030 (.011)	-.055	.003 (.007)	.006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 /조손가정)	-.009 (.009)	-.020	-.034 (.012)	-.060 **	.009 (.007)	.019
	가구소득 = 50%미만 (ref.150%이상)	.030 (.015)	.064 *	.032 (.018)	.057	.013 (.011)	.027
	가구소득 = 50~100%미만 (ref.150%이상)	.021 (.014)	.050	.014 (.017)	.027	.014 (.011)	.032
	가구소득 = 100~150%미만 (ref.150%이상)	-.003 (.014)	-.006	-.021 (.018)	-.037	.008 (.011)	.018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76 (.015)	-.183 ***	-.070 (.018)	-.139 ***	-.038 (.011)	-.093
	거주지역=중소도 시 (ref.농어촌)	-.022 (.015)	-.053	-.012 (.018)	-.025	-.015 (.011)	-.037
독립 변수	가정 내 학대	.066 (.005)	.247 ***	.073 (.006)	.223 ***	.027 (.004)	.103 ***
매개 변수	우울·불안	-	-	-	-	.503 (.012)	.648 ***
모형 적합 도	R <sup>2</sup>	.087*		.083		.472	
	Adj R <sup>2</sup>	.084		.079		.470	
	F	26.269***		24.938***		222.629***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8>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24.938(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3%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가정 내 학대의  $\beta$ 값이 .223(p<.001)로 확인되어 가정 내 학대가 우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 매개변수인 우울·불안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9>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F값은 222.629(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72%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가정 내 학대는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103$ , p<.001). 하지만, <모형 9>의 경우 <모형 3>에 비해 통계적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247 > \beta=.103$ ). 또한, 우울·불안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48$ , p<.001). 이는 [연구가설 2-3]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는 <모형 3>에서는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 9>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붓스트레핑을 활용하여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붓스트레핑을 위하여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이고, 이를 통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효과의 계수와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각 피해 유형에 따른 효과 계수 및 신뢰구간은 <표 5-10>에 제시하였다.

<표5-10>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붓스트레핑 검증 (number of repetition : 5,000 times)

		매개효과 계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학교 폭력	간접효과 (매개효과)	.1239	.0151	.0957	.1548
	직접효과	.1052	.0110	.0835	.1268

	총효과	.2291	.0140	.2016	.2565
사이버 폭력	간접효과 (매개효과)	.0950	.0137	.0700	.1238
	직접효과	.0516	.0097	.0325	.0707
	총효과	.1467	.0126	.1219	.1714
가정 학대	간접효과 (매개효과)	.0381	.0050	.0287	.0485
	직접효과	.0264	.0040	.0185	.0342
	총효과	.0644	.0052	.0543	.0746

우선 학교폭력부터 효과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간접효과의 편의수정 신뢰구간의 하한한계(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LLCI)는 .0957, 상한한계(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ULCI)는 .1548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하한한계는 .0835, 상한한계는 .1268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의 하한한계는 .2016, 상한한계는 .2565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효과들의 하한한계와 상한한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형 1]과 [모형 4], [모형 5]를 통해 검증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부분 매개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의 간접효과에 대한 하한한계는 .0700, 상한한계는 .1238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하한한계는 .0325, 상한한계는 .070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총 효과의 하한한계는 .1219, 상한한계는 .1714로 나타났다. 즉, 모두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형 2]과 [모형 6], [모형 7]를 통해 검증한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간접효과에 대한 하한한계는 .0287, 상한한계 .0485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하한한계는 .0185, 상한한계는 .034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총 효과의 하한한계는 .0543, 상한한계는 .07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부분 매개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앞서



[모형 3]과 [모형 8], [모형 9]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Baron과 Kenny가 제시한 검증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와 붓스트레핑을 통해 재검증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통합모형 검증

앞서 Baron과 Kenny가 제시한 검증방법에 따라 독립변수인 각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개별적으로 분석했던 것에 더 나아가 통합모형을 통하여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피해유형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통합모형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0]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X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X_7$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X_8$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모형 11]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epsilon$$

Y : 우울·불안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X_7$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X_8$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모형 12]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D_2$  : 연령  
 $D_3$  : 가구 소득  
 $D_4$  : 거주 지역  
 $D_5$  : 가정 유형

$X_6$  : 학교폭력 피해경험  
 $X_7$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X_8$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X_9$  : 우울·불안

<표5-11>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n=2,497)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종속변수:공격성)		(종속변수:우울·불안)		(종속변수:공격성)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통제 변수	상수항	.862 (.026)	***	.918 (.032)	***	.397 (.023)	***
	성별=남자 (ref.여자)	-.006 (.008)	-.014	-.026 (.009)	-.052	.007 (.006)	.018
	연령=9-11 (ref.12-17)	-.014 (.008)	-.032	-.030 (.010)	-.055 **	.001 (.006)	.002
	가정유형=양부모 (ref.한부모 /조손가정)	-.012 (.009)	-.026	-.037 (.011)	-.066 **	.007 (.007)	.015
	가구소득 = 50%미만 (ref.150%이상)	.028 (.014)	.060	.029 (.018)	.051	.013 (.011)	.029
	가구소득 =	.018	.041	.009	.017	.013	.031

	50~100%미만 (ref.150%이상)	(.014)		(.017)		(.011)		
	가구소득 = 100~150%미만 (ref.150%이상)	-.003 (.014)	-.005	-.022 (.017)	-.0383	.008 (.011)	.018	
	거주지역=대도시 (ref.농어촌)	-.067 (.014)	-.183 ***	-.070 (.018)	-.139 ***	-.040 (.011)	-.098 ***	
	거주지역=중소도 시 (ref.농어촌)	-.032 (.014)	-.079 *	-.023 (.018)	-.045	-.021 (.011)	-.051	
독립 변수	학교 폭력	.167 (.016)	.227 ***	.155 (.020)	.173 ***	.088 (.013)	.120 ***	
	사이버 폭력	.049 (.014)	.075 ***	.081 (.017)	.102 ***	.008 (.011)	.012	
	가정 내 학대	.047 (.005)	.177 ***	.052 (.006)	.160 ***	.021 (.004)	.077 ***	
매개 변수	우울·불안	-	-	-	-	.506 (.013)	.619 ***	
모형 적합 도	R <sup>2</sup>		.155		.136		.486	
	Adj R <sup>2</sup>		.151		.132		.474	
	F		41.513 ***		35.560 ***		196.1055 ***	

\*p<.05, \*\*p<.01, \*\*\*p<.001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표5-11>과 같다. [모형 10]에 나타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모형 10]의 적합도 F값은 41.513(p<.001)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 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beta=.227(p<.001)$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beta=.075(p<.001)$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은  $\beta=.177(p<.001)$ 로 나타나 학교폭력, 가정 내 학대의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 미치는 촉발요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다른 피해유형에 비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11]에 나타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1]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F값은

35.560( $p < .001$ )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3.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beta = .173$ ( $p < .001$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beta = .102$ ( $p < .001$ ),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은  $\beta = .160$ ( $p < .001$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따른  $\beta$ 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모형 1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교폭력, 가정 내 학대, 사이버폭력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 중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12]에 따라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12]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F값은 196.1055( $p < .001$ )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8.6%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각 독립변수는 모두 [모형 10]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beta = .120$ ( $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beta = .077$ ( $p < .001$ )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모형 10]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하는 검증방법에 따르면 1단계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2단계인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조건에서 3단계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의 영향력에 비해 감소하면 부분매개를 나타내는 반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완전매개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모형 10]에서는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나 [모형 1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모형 10]에 비해 [모형 12]에서 학교폭력( $\beta = .277 > \beta = .120$ )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beta = .177 > \beta = .077$ )은 통계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 6 장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에 주목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긍정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다루지 않고 비행행동, 폭력행동 등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서미정, 2011). 그러나 가해자의 공격성과 더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 등 다양한 면모를 포함하는 공격성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erkowitz(1989)가 제시한 좌절-공격성 이론을 바탕으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그리고 우울·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개의 연구문제와 각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제 3차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응답한 총 2,497명의 아동·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방법과 붓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는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어 피해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제시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에 대하여 모든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좌절-공격성 이론의 원초 모델인 ‘좌절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Dollard et al.(1939)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따돌림, 폭력, 왕따, 방임 등 다양한 폭력 및 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세원, 2021; 김은영, 2014; 오인수, 이수경, 2012; 윤소영, 유미숙, 2011; Berman & Taylor, 1997; Olweus, 1993).

둘째, [연구문제 2]를 통하여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매개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울·불안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과 공격성 간을 부분 매개하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우울·불안이 공격성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증가하고, 우울·불안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성 이론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경험(aversive event)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 정서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폭력이나 학대 피해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의 관계에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 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 1.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교폭력을 경험할수록 (Cherkmanck at et., 1997; 윤소영, 유미숙, 2011),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수록(전은숙, 2013; 오인수, 이수경, 2012), 그리고 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방임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할수록(Mazerolee, & Piquero, 1997; Bernstein, & Watson, 1997)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으로 살펴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피해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beta$ 값이 나타내는 영향력의 차이가 실제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 $\beta=.168$ ,  $p<.001$ )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beta=.048$ ,  $p<.001$ )과 가정 내 학대( $\beta=.047$ ,  $p<.001$ )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개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 우울·불안이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에 우울·불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 및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을 부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은 우울·불안을 완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단순히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보다 공격성을 촉발하는 부정적인 감정 및 정서,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우울 및 불안이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공격성에 대한 개입 이전에 우울·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해볼 수 있다. 또한,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높은 우울·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요인을 탐색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공격성에 완전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 및 불안감으로 인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았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Berkowitz(1980)는 공격성을 통해 돌파형 혹은 회피형의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 폭력의 피해경험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부분매개한다는 주장(이석영, 이택호, 한운선, 2015)과 비행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영향에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한다는 주장(양혁, 양나연, Kim, 김보영, 2019), 사이버불링의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우울이 매개한다는 주장(조운오, 2013)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 및 학대 피해가 우울·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높은 우울과 불안감에도 ‘공격적인 행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Lee와 Kim(2017)의 연구에서는 피폭력 경험이 우울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반면, 오히려 비행의 수준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민경과 조한익(2019)의 연구에서도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을 매개로 가해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피해 경험이 우울의 수준을 높이는 반면, 우울을 매개로 비행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You & Lim, 2015). 또한, 배성만(2017)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켰지만, 우울을 매개로 했을 때 방화, 시설 파괴와 같은 비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정학대의 피해자가 행위자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폭력의 재생산성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오주, 아영아, 2006; Hay, & Evan, 2006; Dodge, Bates, & Pettit, 1990).

이와 같이, 우울·불안이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에는 매개하지만, 높은 공격성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행위에는 매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폭력의 재생산성 현상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나 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폭력의 재생산성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듯 폭력의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폭력행위와 같이 공격적인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Berkowitz, 1989). Berkowitz(1989)는 좌절을 경험한 개인이 부정적인 감정을 매개로 공격성으로 발현될 때에 회피형 공격성(flight)과 돌파형 공격성(fight)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회피형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외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피하거나 도망치려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돌파형 공격성의 경우 고함이나 폭력 등 관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격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 3 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 내 학대라는 세 변인이 우울 및 불안, 공격성과 이루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이버폭력과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에 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다른 피해 유형 중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대면 혹은 익명과 같은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공격성 외에 다른 외현화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때문에, 폭력 혹은 학대 피해경험을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피해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지 않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공격성(aggressive inclination), 그 자체를 살펴본 연구의 넓이를 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폭력적인 행동, 비행행동과 같이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외현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을 설명할 수 없고, 공격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인을 다양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장현수, 김혜숙,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 성향과 공격적 행동 등 공격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더 넓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사회복지분야에도 접목시켜 이론의 적용을 확장시켰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본 이론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영학(Reio, 2011; Fox & Spector, 1999), 교육학(Weiner, 1972), 심리학(Cohen, 1955)에서 접목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본 이론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적용시켜본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 사회복지학은 현상에 대하여 ‘왜 발생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접근에 초점을 두는 학문이다(강철희, 김미옥, 2003). 이에 본 연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촉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인을 제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매개효과로 밝혀진 우울 및 불안은 통해 공격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길 기대해본다.

##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공격성으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가정 내 학대 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전사회적인 노력이 촉구된다. 또한, 공격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남긴다.

## 1) 폭력 및 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첫째로, 본 연구에서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폭력 피해경험( $\beta = .227, p < .001$ )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beta = .075, p < .001$ ) 그리고 가정 내 학대 피해경험( $\beta = .177, p < .001$ )이 밝혀진바 이러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모형의 [모형 9]에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다른 피해경험에 비해 학교폭력이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아동·청소년기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피해경험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사회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상의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효과성 높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뉴욕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내 갈등해결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이하 RCCP)을 실시하고 있다(정재준, 2012). RCCP는 400 여 곳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기반(school-based)의 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감정의 표현, 타인에 대한 존중, 갈등 해결 등을 다루고 있다. RCCP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오랜 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자가 어떻게 전달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겨있다(정재준, 2012). RCCP와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는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OBPP)도 주목할 수 있다. OBPP는 또래 괴롭힘 방지 및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OBPP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피해청소년에게는 개별화된 집중적인 개입을 실시하는 동시에 폭력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상에게도 효과적인 집단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BPP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3년 내 또래 괴롭힘이나 왕따와 같은 학교 폭력의 추세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tofi & Farrington, 2009). 이와 같이,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효과성을 보이는 RCCP와 OBPP가 가지는 공통점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여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간 할애도 힘들뿐더러 교사의 역량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지현, 임기호, 2021).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잘 전달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조성이 필요한바, 국내에서도 교사의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제공을 통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시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학대 피해 사례는 그동안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사회의 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정서적 학대가 7,622건(2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4,179건(13.9%), 방임 2,885건(9.6%), 성학대 883건(2.9%)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당사자가 스스로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아동학대 동향만 보더라도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20) 조기에 발

견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가는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공공의 영역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부정적인 심리정서에 대한 개입 방안 마련

본 연구결과는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우울과 불안이 매개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배경적 이론으로 설정한 좌절-공격성 이론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부정적인 감정을 매개하여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공격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그치지 않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교내에서 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위(Wee) 클래스의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한 심정연(2017)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지원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위(Wee) 클래스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과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우울과 불안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다른 피해 경험과 달리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불안한 심리정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이버폭

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안정적인 심리정서를 위한 개입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Wee) 클래스의 전문상담가 혹은 사회복지사는 사이버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우울·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전문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와 다르게 치료의 공간을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혹은 정신요법치료(PDT: Psychodynamic Psychotherapy)을 사이버공간에서 실시한 결과, 오프라인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son, Cuijpers, Carlbring, Riper, & Hedman, 2014). 특히, 본 연구의 매개요인인 우울 및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소개되는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실시한 결과 오프라인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Hesser, Westin, Andersson, Bahav, 2014).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 미진한 온라인 심리치료(m-health)를 확대하여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효과적인 심리치료 개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학대 피해아동은 풀배터리검사(Full Battery Assessments)를 통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약 저소득층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부 검사비용을 자부담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거부할 경우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리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진단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반해 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분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학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 보면 심리치료지원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중 9.9%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2020). 본 연구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영향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바, 전문적인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안

다음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조사된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시간의 흐름을 더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횡단적 연구는 종적 연구에 비해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Gee & Walsemann, 2009).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같은 패널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내듯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는 경험과 공격성, 그리고 이로 인한 비행 및 일탈 행위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인들 간의 중·장기적 변화를 파악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아동기에 겪는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공격성향과 일탈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폭력에 대해 묻는 문항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고,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내 학대 경험의 경우 각각 일곱 개, 열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단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내용 또한 또래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문자나 사진이 올라간 경험이 있는지와 인터넷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이버폭력의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된 사이버폭력의 양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사이버폭력

의 피해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과 같이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채널별 특징이 고루 반영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묻는 문항이 검토된다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피해가 중복되어 일어남에 따른 영향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동·청소년기에 마주하는 위험은 한 가지 이상 중복되었을 때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Evans & Whipple, 2013). 누적효과이론(cumulative effect theory)에서도 아동기에 노출되는 한 개 이상의 위험은 단일적인 위험에 비해 심리정서에 더 높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Rutter, 1979). 이에 따라, 피해경험이 중복되어 노출되었을 때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피해자의 공격성’을 다루고 있어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또 다른 낙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아쉬움을 갖는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의 공격성이 사회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Coie & Dodge, 1998; Olweus, 1997)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공격성에 대한 촉발요인을 파악하고 매개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좌절-공격성 이론에서는 공격성이 필연적으로 폭력이나 비행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앞으로 공격성에 대한 풍부한 연구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공격적 행위를 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치유를 통해 언제든지 회복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인설, & 박희경. (2014).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또래관계, 우울 및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13-228.
- 강철희, & 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55), 55-81.
- 고광만. (2012).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 발달 궤적 연구. **생애학회지**, 2(2), 67-80.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교육부. (2019). 2019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교육부**.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경은, &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미숙. (2016).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정 내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2(2), 1-24.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 . . 한국. 보건복지부. (2014). 아동종합실태조사 / 김미숙 [외]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 김미정, &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세원. (2021). 청소년기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발달 결과. **청소년문화포럼**, 33-62.

- 김세원, 이봉주, 김현수, 이상균, & 장화정. (2020). 아동보호서비스 특성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4, 463-488.
- 김소영, & 김지은. (2014). 학교안전망구축사업(Wee project)의 효과 분석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115-133.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 MPLUS 예제와 함께. **학지사**.
- 김재엽, & 이동은. (2014).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 우울 및 TSL 표현 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지**, 45, 131-160.
- \_\_\_\_\_, & 남보영. (2012). 신체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부모애착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3), 169-191.
- \_\_\_\_\_, (1996). 가정 폭력의 피해자의 가해자를 위한 개입 방안 연구 - 임상 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93, 19.
- 김정원, & 오경자. (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2), 126-141.
- 김준호.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김지영, & 이경희, Kim, Ji Young, & Lee, Kyunghee.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752-760.
- 김연순, & 박분희 (2004). 농촌과 도시 아동의 집단따돌림 연구. **아동교육**, 13(2), 31-42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66.

- 김유정, & 안선희. (201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지역효과 연구. **아동과 권리**, 16, 341-365.
-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경, &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3), 1-18.
- 김은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1-22.
- 김은정, & 박은정. (2005). 아동 우울 예방을 위한 인지 행동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404-405.
- 김평화, &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9.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김현진, & 김민. (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97-122.
- 김혜련, & 이재연.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1), 91-108.
- 노충래, & 이신옥. (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 1-35.
- 노혜련, 김형태, & 유서구. (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 이봉주. (2019). 아동 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민정, &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정녀 & 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 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지현, 임기호. (2021).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 고찰 및 개선방안. **교육발전**, 40(3)
- 박지혜, 오주화, & 정현희. (2019). 초기 청소년의 비행 피해-가해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또래소외, 우울 및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27.
- 변은실, &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보건복지부,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손병덕. (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송민선, & 박희현. (2012).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 송아영, 박경나, &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 의 2 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심정연. (2017). Wee 클래스 효과 분석 - 서울특별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진, 이창호, 조운오, 오인수, 김봉섭, 김경희, ... & 신나민. (2015).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교육과학사**.
- 양혁, 양나연, 김은주, & 김보영. (2019). 비행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 및 비행가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673-691.
- 여유진. (2017).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336, 1-8.
- 염정원 & 조한익 (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오경자, & 배도희. (2010). 한국판 CBCL 공격행동척도의 하위 2 요인 모형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71-390.
- 오 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오태곤. (2013).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12), 207-215.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아, 박영례, & 최미혜(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우채영, & 정현희(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관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유나, 김승윤, & 이상민.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교육치료연구** 8.3 (2016): 337-350.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 윤소영, & 유미숙.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14(4), 59-75.
- 이경숙, 김보애, & 노정숙. (2003). 신체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놀이치료연구**, 7(2), 115-126.
-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 이미리. (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37-152.
-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7-53.
- 이수경, & 오인수. (2012). 충동성, 공격성과 직접, 관계적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상담학연구**, 13(4), 2017-2032.
- 이완정, & 정혜진. (2010). 아동청소년기 폭력노출경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아동과 권리**, 14, 385-407.
- 이유나, & 조윤오. (2015).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5-98.
- 이정선, &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이주성. (2004).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 박화옥(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399-426.
- 장현수, & 김혜숙(2010). 집단미술치료가 문제행동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101-125.
- 전은숙. (2013).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정기원, & 서현숙. (2007).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노출 유형별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5), 49-73.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_\_\_\_\_,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재준. (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법학**, 53.
- 정해린, & 이봉주. (2020).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비용 편익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4), 119-145.
- 조민경, & 조한익. (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6(1), 17-38.
- 조운오.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2013): 117-42. Web.
- 조춘범 (2015).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71-92.
- 진혜민, &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

년복지연구, 14(2), 193-221.

푸른나무재단. (2021).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푸른나무재단.

한지연, & 임영식.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폭력의 관계에서  
학교참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 431-452.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7, 371-392.

\_\_\_\_\_,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Ak, Ş., Özdemir, Y., & Kuzucu, Y. (2015).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anger, don't anger m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9, 437-443.

Akers, R. L. (1973).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Al-Fayez, G. A., Ohaeri, J. U., & Gado, O. M. (2012). Prevalenc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buse among a  
nationwide sample of Arab high school students: association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1), 53-66.

Allen, J. J., & Anderson, C. A. (2017). General aggression model.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1-15.

Anderson, C. A. (1989). Temperature and aggression: ubiquitous  
effects of heat on occurrence of human viol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6(1), 74.

- \_\_\_\_\_,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51.
- Andersson, G., Cuijpers, P., Carlbring, P., Riper, H., & Hedman, E. (2014). Guided Internet based vs. face to face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sychiatric and somat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World Psychiatry*, 13(3), 288-295.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27-139.
- Archer, D., & McDaniel, P. (1995). Violence and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cross societi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ron, R. A., & Richardson, D. R. (2004). Human aggress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Bandura, A., & Walters, R. H. (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
- \_\_\_\_\_,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 - 503.
- \_\_\_\_\_, L. (1983). Aversively stimulated aggression: Some parallels and differences in research with animals and humans.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35.

- \_\_\_\_\_,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2), 165.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oyes, M. E., Bowes, L., Cluver, L. D., Ward, C. L., & Badcock, N. A. (2014). Bullying Victimization, Internalising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in South African Children and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 1313-1324.
- Breuer, J., & Elson, M. (2017). Frustration - aggression theory. *The Wiley handbook of violence and aggression*, 1-12.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 & Lynam, D. R.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
- Buss, A. H. (1966). The effect of harm on subsequent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 Carter, B., Paranjothy, S., Davies, A., & Kemp, A. (2020). Mediators and Effect Modifiers of the Causal Pathway Between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Internaliz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 Chermack, S. T., Berman, M., & Taylor, S. P. (1997). Effects of provocation on emotions and aggression in male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3*(1), 1-10.
- Cohen, A. R. (1955). Social norms, arbitrariness of frustration, and

status of the agent of frustration in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2), 222.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Coloroso, B. (2003).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Compton, W. C., & Hoffman, E. (2019).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flourishing. *Sage Publications*.

Dumas, J. E., & Lechowicz, J. G. (1989). When do noncompliant children comply? Implications for family behavior therapy.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11(3-4), 21-38.

\_\_\_\_\_,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4988), 1678-1683.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

Farrington, D. P. (1991). Childhood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Early precursors and later-life outcome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5, 29.

\_\_\_\_\_,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2), 79-100.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4), 316-329.

Fox, S., & Spector, P. E. (1999). A model of work frustration - aggress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6), 915-931.

- Freud, A. (1947). Aggression in relation to emotional development; normal and pathological.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1), 37-42.
- Gómez-Guadix, M., Orue, I., Smith, P. K., & Calvete, E. (2013). Longitudinal and reciprocal relations of cyberbullying with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4), 446-452.
- Gee, G., & Walsemann, K. (2009). Does health predict the repor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or do reports of discrimination predict health?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ocial Science & Medicine*, 68(9), 1676-1684.
- Geen, R. G., & Bushman, B. J. (1989). The arousing effects of social presence. *Handbook of social psychophysiology*, 261-281.
- \_\_\_\_\_, (1968). Effects of frustration, attack, and prior training in aggressiveness up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316.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41-455.
- Hay, C., & Evan, M. (2006). Violent victimization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Examining prediction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3), 261-274.
- Hayes, A. F.,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18-1927.

- \_\_\_\_\_, Preacher, K.J., and Myers, T.A.(2010),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E. P., & R. Lance Holbert (Eds),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New York: Routledge
- Hesser, H., Westin, V. Z., & Andersson, G. (2014). Acceptance as a mediator in internet-delivere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tinnitu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7(4), 756-767.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Kashani, J. H., Beck, N. C., Hooper, E. W., Fallahi, C., Corcoran, C. M., McAllister, J. A., & Reid, J. C. (1987). *Psychiatric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 Kemp, A. (2001). 가족학대 · 가족폭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나남출판* (Abuse in the Family, 2001).
- Kim, E. J., & Oh, K. J. (1992).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117-128.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5), 611-618.
- Kovacs, M. (1990). Comorbid anxiety disorders in childhood-onset depressions.
- Lamont, A. 2010.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NCPC Resource Sheet).Retrieved from

<http://www.aifs.gov.au/nch/pubs/sheets/rs17/rs17.html>

- Lee, Y. H., & Kim, S. W. (2017). The role of anger and depressive mood in transformation process from victimization to perpetration. *Child Abuse & Neglect, 63*, 131-140.
-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4), 427-434.
- Lochman, J. E. (1992).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year follow-up and preventive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3), 426.
- Maughan, B., & Rutter, M. (1997). Retrospective reporting of childhood adversity: Issues in assessing long-term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1), 19-33.
-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 (200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im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1), 29-4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04.
- Mazerolle, P., & Piquero, A. (1998). Linking exposure to strain with anger: An investigation of deviant adapta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6*(3), 195-211.



- Miller, N. E. (1941). I.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4), 337.
- Mills, C. 2004. "Problems at home, problems at school: The effects of maltreatment in the home on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London: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Pastore, N. (1952). The role of arbitrariness in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3), 728.
- Petras, H., Schaeffer, C., Ialongo, N., Hubbard, S., Muthen, B., & Lamert, S.(2004). When the course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does not predict antisocial outcomes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4), 919 - 941.
- Piquero, A. R., Connell, N. M., Piquero, N. L., Farrington, D. P., & Jennings, W. G. (2013). Does adolescent bullying distinguish between male offending trajectories in late middl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3), 444-453.
- Polanin, J. R., Espelage, D. L., & Pigott, T. D. (2012).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effects on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School Psychology Review*, 41(1), 47-65.
- Prinstein, M. J., & Cillessen, A. H. (2003). Form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peer aggress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peer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310-342.
- \_\_\_\_\_,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Reio Jr, T. G. (2011). Supervisor and coworker incivility: Testing the work frustration-aggression model.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3*(1), 54-68.
- Shackman, J. E., & Pollak, S. D. (2014). Impact of physical maltreatment on the regulation of negative affect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4 0 1), 1021.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Tam, F. W. M., & Taki, M. (2007). Bullying among girls in Japan and Hong Kong: An examination of the frustration-aggression model.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13*(4), 373-399.
- Ttofi, M., & Farrington, D. (2009). What works in preventing bullying: Effective elements of anti bullying programmes.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 Wenar, C., and Kerig, P..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Boston: McGraw-Hill.*

Weiner, B. (1972). Attribution the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ducational proc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2(2), 203-215.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4901), 160-166.

You, S., & Lim, S. A. (2015). Development pathways from abusive parenting to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Child Abuse & Neglect*, 46, 152-162.

**[보도자료]**

정해은. (2020. 10. 05.). 전북도내 학생 상담지원 '위 클래스' 설치율 전국 꼴찌. 전북일보. 2021. 05. 17. 검색.

<http://m.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428>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2021.02.14. 검색.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31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1.02.20. 검색.

## Abstract

# The Effect of Experience of Violence and Abuse on Aggression : Based on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Hyun-Jin, Lee

Department of Social Work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cyber violence, and domestic abuse on aggress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xamine whether depression and anxiety are mediated.

Prior studies have shown that negative events such as violence and abuse experiences can negatively affec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However, it did not comprehensively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at the variable of the violence and abuse experience. Furthermore, prior studies of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 primarily on observable behaviors, such as externally revealed misbehavior, or violent behavior even though there are a wide aspects of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explains that negative emotions play a role as a mediator. Based on Frustration-aggression theory(Berkowitz, 1989), this study primarily seeks to examine whether violence and abuse experiences affect to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Based on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 (1) Does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abuse in adolescents affect aggression?
- (2) Does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abuse affect aggression through the medi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2,497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Korean Children's Comprehensive Survey were subject to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focusing on major variables.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how violence damage experiences in school violence, cyber violence, and domestic abuse affect to aggress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s a mediato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school and cyber violence, and domestic abuse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aggression. Second, school and cyber violence, and domestic abuse experience influenced on the aggression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depression and anxiety. The results show that

the aggression and anxiety partially mediates in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domestic abuse. On the other hand, the aggression and anxiety completely mediates in the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and aggression and anxiety.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explanation of negative events and negative emotions mediated in aggression which was claimed by the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was supported. It indicates that the intervention of relieving depression and anxiety is necessary in order to alleviate the aggre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eywords** :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Violence, Abuse, Aggression, Depression

**Student Number** : 2018-28786